

# 沖ノ島(오키노시마) 出土 新羅 遺物의 研究\*

박 광 춘\*\*

## 〈목 차〉

- I. 머리말
- II. 沖ノ島의 제사 유적 현황
- III. 沖ノ島의 한국계 遺物의 연대
- IV. 沖ノ島와 新羅 유물의 봉헌 배경
- V. 맺음말

## 국문요약

한반도와 日本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대표적 섬은 對馬島와 沖ノ島가 있다. 對馬島에 비해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沖ノ島는 부산에서 145km 떨어져 있으며, 크기가 동서 1.5km, 남북 0.5km에 지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이다. 이 때문에 先史時代 이래 沖ノ島보다 對馬島가 韓·日 海上交通의 주요 據點이 되어 왔다. 그런데 沖ノ島는 韓·日 海上交通路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出土되는 삼국시대 新羅 遺物은 질적인 내용에 있어 對馬島 出土 新羅 遺物을 압도하고 있다. 현재 일반 사람이 함부로 상륙할 수 없는 沖ノ島는 1954년부터 시작된 沖ノ島에서 3차례에 걸친 학술조사 결과 섬의 중간에 23개소의 제사유구를 확인하였으며 이 중 新羅 遺物은 岩上 祭祀遺跡에서 발견된 鐵鋌, 岩陰 祭祀遺跡에서 발견된 馬具類, 금제반지, 유리완 등이 있다. 이 유물들은 삼국시대 新羅의 왕족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공예품인 것을 新羅 고분 출토 유물과 비교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외에 이들 유물은 주로 5세기에서 6세기 전반에 봉헌된 것이었다. 그 당시 新羅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동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와 倭는 『三國史記』의 기사를 분석하면 대부분 倭가 新羅를 침공했다는 기사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으나 최고급 新羅 공예품이 沖ノ島와 倭의 정치적 중심지인 畿內地方에서 출토되고 있어 『三國史記』의 기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물들이 5세기 이후 沖ノ島에서 봉헌되는 배경에는 철을 매개로하는 무역 활동과 新羅의 사신이 畿內地方으로 가기 위해 중간 귀착지로서 沖ノ島에 도착하여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용왕에게 올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세기 전엽 많은 新羅系 유물이 봉헌되는 것은 『日本書紀』 繼體天皇 21年(527)에 보이는 磐井亂과 결부시켜 볼 수 있다. 6세기에 들어오면 『三國史記』에는 갑자기 新羅와 倭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지만 『日本書紀』에는 新羅가 磐井(이와이)에게 보물을 보내 倭軍의 新羅 원정을 저지해라고 부탁한다. 磐井(이와이)는 火와 豊 두 나라에 힘을 뺏쳐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는 한반도에 이르는 해로를 봉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新羅에서는 磐井에게 사신을 파견했을 것이며, 沖ノ島에서 新羅의 사신을 맞이한 磐井의 최측근 장수는 沖ノ島에서 같이 제사를 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 沖ノ島, 신라계 유물, 貿易, 使臣, 磐井(이와이)

---

## I. 머리말

沖ノ島는 對馬島와 더불어 한반도와 日本을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섬이다. 韓半島 동남 모서리에 있는 釜山에서 거리적으로 보면 沖ノ島는 145km 떨어져 있으며, 위치적으로도 對馬島보다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섬의 크기가 동서 1.5km, 남북 0.5km에 지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이어서 한국에서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비해 對馬島는 釜山에서 直線 距離로 49.5km에 지나지 않고, 섬의 크기가 82km나 되기 때문에 맑은 날씨에는 釜山에서 對馬島가 선명하게 보인다. 그래서 先史時代 이래 沖ノ島보다 對馬島가 韓·日 海上交通의 주요 據點이 되어 왔다. 현재 對馬島에는 이것을 뒷받침하는 한국계의 많은 遺物들이 出土되고 있다. 그런데 沖ノ島는 韓·日 海上交通路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出土되는 삼국시대 한국계 遺物은 질적인 내용에 있어 對馬島 出土 한국계 遺物을 압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沖ノ島가 對馬島에 비해 한·일 양국을 연결하는 특별한 목적의 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4년부터 시작된 沖ノ島에서 3차례에 걸친 학술조사 결과 섬의 중간에 23개소의 제사유구를 확인하였으며 발견된 유물의 연대를 추정해 본 결과 4~10세기에 걸쳐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사 방식은 여러 형태로 행하여졌으며 시간적 변화에 의해 그 양상이 약간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중 한국계 遺物은 岩上 祭祀遺跡에서 발견된 鐵鋌, 岩陰 祭祀遺跡에서 발견된 馬具類, 금제반지, 유리碗 등이다. 암상 제사 유적에서 발견된 鐵鋌은 4세기 후반~5세기에 봉헌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암음 제사 유적에서 발견된 馬具類, 금제반지, 유리碗 등은 5세기 후반~6세기로 편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沖ノ島에서는 5~6세기 어느 시점에 적어도 두 차례 이상 신라계 유물로 제사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岩陰 祭祀遺跡에서 발견된 馬具類, 금제반지, 유리碗 등은 5~6世紀 新羅의 王陵이나 貴族의 무덤인 積石木槨墓에서 出土되던 것으로, 그 당시 工藝 技術의 最上級 製品이다. 5~6世紀에 對馬島가 아닌 沖ノ島에 新羅의 최고급 工藝品이 발견되는 것은 그 당시 신라와 왜의 외교 관계에 있어 어떤 특별한 역사적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5~6世紀 신라와 왜는 적대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일 역사학계 통설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沖ノ島에 다수 발견된 신라의 최상

급 제품은 기존의 학설로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沖ノ島 출토 신라계 유물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유물이 봉헌되게 된 배경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 II. 沖ノ島の 제사 유적 현황

沖ノ島는 對馬島와 함께 고대부터 한일 해양 교통로의 중심축이었으나 圖 1에서와 같이 대마도에 비해 위치적으로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 선사시대의 한일 교통로는 주로 한국 → 對馬島 → 壹岐 → 北九州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역사시대에는 일본의 중심이 지금의 오오사카(大阪), 나라(奈良)를 중심으로 하는 긴끼(近畿)지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상 교통로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에는 近畿지방과 직선적인 교통로가 중시되어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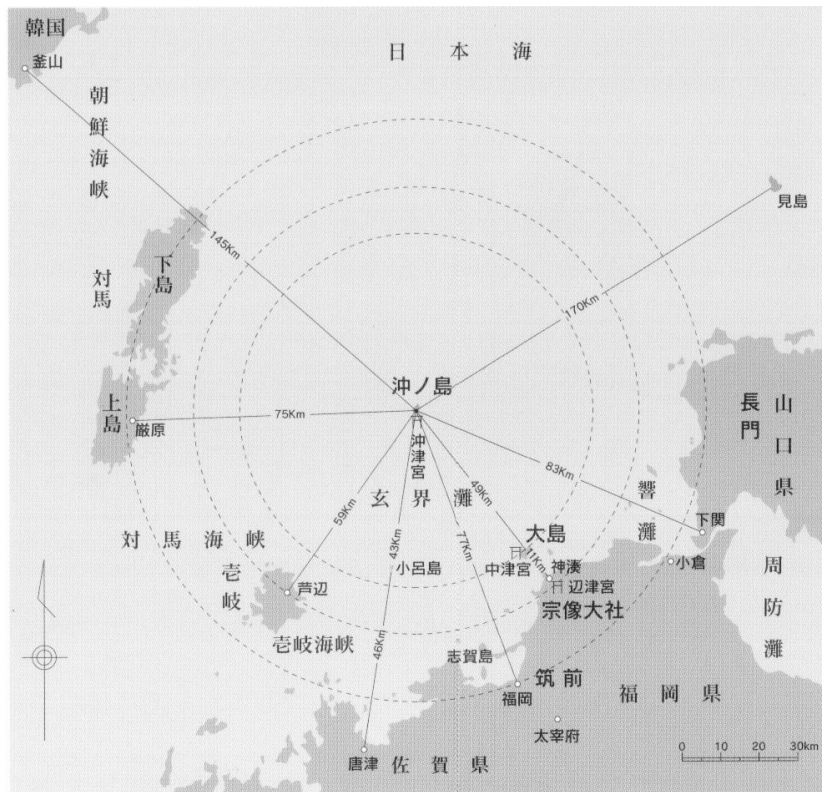


圖 1. 沖ノ島の 위치

국 → 對馬島 → 沖ノ島 → 무나가타(宗像)로 가는 교통로가 생기면서 沖ノ島는 해양교통의 중심지로 새롭게 부각하게 되었다. 항해 기술이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삼국시대에 있어 소형 선박으로 거친 현해탄을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목표 지점이 있다면 훨씬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 沖ノ島는 작은 섬이지만 대마도에서 긴끼(近畿)지방으로 가기 위한 직선상의 해상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시대 이후 항해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나침판이 되었다. 망망대해에서 어떤 목표 섬이 보이면 항해자들은 안도감과 함께 해양안전을 위해 섬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을 것이며 이 때문에 沖ノ島는 점차 신성한 섬으로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이후 이 섬은 무나가타(宗像)의 해상세력이 관리하면서 신의 섬으로 미화시켜 일반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沖ノ島는 현재 일반인이 함부로 섬에 접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적 행사나 학술조사로 섬에 들어갈 경우는 목욕제하게 않으면 상륙할 수 없다. 특히 여자는 아예 섬에 발을 들여 놓을 수가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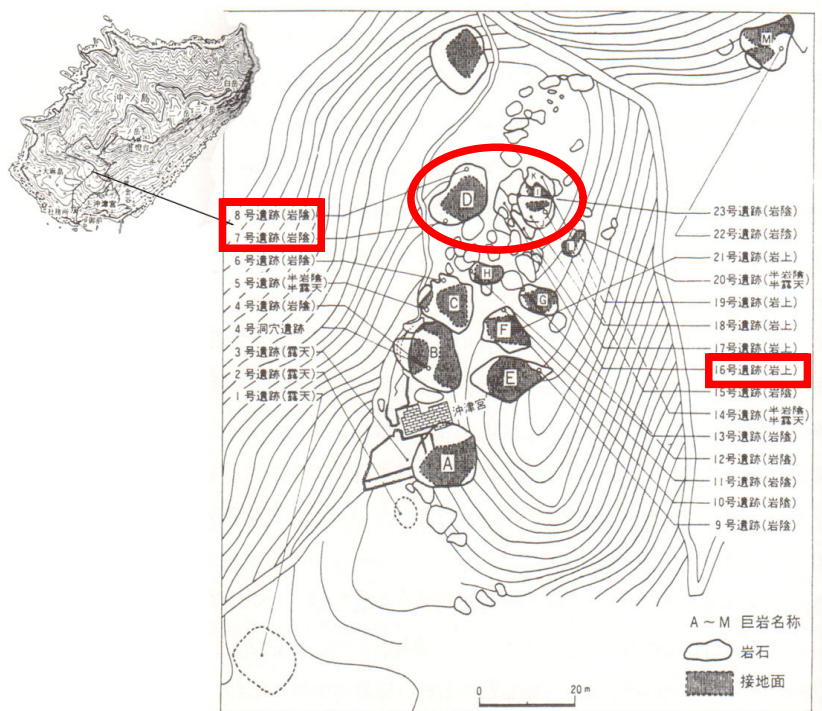


圖 2. 沖ノ島の 제사유구 중 한국계 유물 출토 유구

타부가 아직도 남아있다. 3차에 걸친 학술조사에서 沖ノ島에서 행해진 제사는 圖 2에서 보듯이 섬의 중간에 있는 오키즈미야(沖津宮) 배후의 巨岩상군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약 23개의 제사 유적이 발견되었다. 제사 형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岩上祭祀

岩上祭祀는 沖ノ島에 있어 최초의 제사 형식으로 현해탄이 보이는 巨岩상의 평평한 장소를 이용하여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채용한 유구는 圖 2에서와 같이 巨岩 I를 중심으로 하는 15·16·17·18·19호 유구와 여기 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巨岩 F를 사용하는 21호 유구가 있다. 이 중 21호 유구는 圖 3에서와 같이 岩上祭祀 형식 중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다. 평평한 巨岩상 중앙에 큰 돌을 놓고 주위를 작은 돌로 방형으로 둘러싸서 제단을 만들었다. 중앙의 大石 주위에 활석제 白石이 흩어져 있는 채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大石에 신령이 머문다고 생각하는 비쭈기나무를 세워 제사를 지낸 것으로 추정된다.

I 巨岩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의 공헌품은 중국의 漢式鏡과 仿製鏡, 碧玉製石釧, 碧玉製車輪石, 碧玉製鍬形石, 유리로 만든 玉類, 武具, 工具 등이 있으며 연대는 주로 5세기에 해당된다. 특히 18호 유구에 봉헌된 수입경이라고 추정되는 三角緣二神二獸鏡은 그 당시 일본 정치 중심인 畿内の 대형고분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沖ノ島에서의 제사는 지방호족 혹은 大和政權에서 지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16호 유구에 봉헌된 철소제인 대형 鐵鋌은 일본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한반도의 신라, 가야, 백제에서 수입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 2. 岩陰祭祀

岩陰祭祀는 야구모자의 차양처럼 돌출한 巨岩 내측 혹은 직하의 평탄한 지면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다. 5세기의 岩上祭祀에서 6세기 이후에 岩陰祭祀로 제사 형식이 변화하는 것은 신이 머무는 장소가 巨巖上에서 巨巖下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岩陰祭祀가 유행하는 시기는 6~7세기가 중심이며, 대표적인 유구는 7·8·22호가 있다. 圖 2에서 7·8호 유구는 D호 巨岩 남쪽과 북쪽을 이용하며 돌출한 巨岩 내측에 유물이 봉헌하고 있어 제사 공간이

넓은 편이다. 圖 4의 22호 유구는 巨岩군에서 약간 위쪽으로 동떨어져 있는 M 巨岩 동쪽 튀어나온 바로 아래에 제단이 설치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간 경사진 주위는 돌을 둘러 외곽을 형성하고 있어 7·8호와 제사 형식을 달리한다.

출토 유물은 서일본 고분시대 후기의 고분에 부장되는 부장품과 유사한 제 품과 함께 5~6세기 신라의 왕릉에 부장되는 최상급 신라계 물품이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유구 7·8호에서 출토된 신라의 유리제품과 금제반지, 금동제 마 구류로서 그 당시 신라와 왜의 관계로 보아서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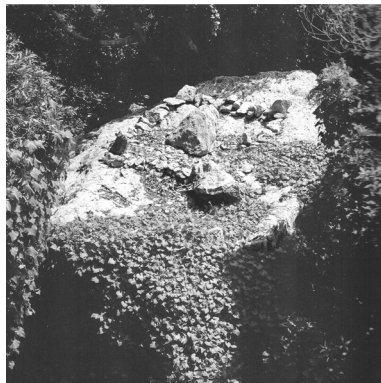


圖 3. 21호 岩上祭祀유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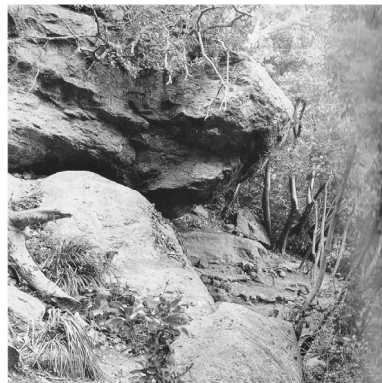


圖 4. 22호 岩陰祭祀유구 전경

### 3. 半岩陰 · 半露天祭祀

이 단계의 제사 형식은 종래의 제단이 岩陰에서 벗어나서 露天으로 바뀌는 과도기 단계에 있다. 제단이 암음 바로 밑과 암음 외의 지면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대표적 유구로 5·20호가 있다. 5호 유구는 沖津宮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B호 巨岩과 C호 巨岩에 둘러싸인 부분에 제단이 설치되어 있다. 토기 공헌에 있어 앞 단계는 암음을 약간 벗어난 곳을 선택하지만 이 단계는 암음과 노천 양쪽 모두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출토 유물도 금속제 雛形品과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외국 수입품으로 중국의 당삼채와 금동제용두가 봉헌되고 있어 앞 단계와 다른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 4. 露天祭祀

沖ノ島의 마지막 제사 형식이 露天祭祀이다. 露天祭祀는 종래의 巨岩 상에서 벗어나 평탄한 지면에 주로 방형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를 지내는 형식이

다. 그 대표적인 것이 沖津宮의 南西 평탄지에 위치하는 1호 유구로 사방 10m 에는 많은 양의 토기와 활석제품이 널려져 있다. 이것으로 보아 8~10세기 사이에 같은 제장에서 제사가 반복되어 봉헌품이 집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沖ノ島의 제사 형식은 시간적 추이에 따라 岩上祭祀 → 岩陰祭祀 → 半岩陰·半露天祭祀 → 露天祭祀으로 변화하는 것은 봉헌된 유물의 상대 연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이 중 岩上, 岩陰祭祀 단계는 圖 2에서 보듯이 巨岩군 중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D, I 巨岩에서 신라 최상급 유물이 봉헌되고 있어 그 당시 신라와 왜의 대외 관계로 볼 때 아주 의외적인 것이다. 沖ノ島 출토 신라계 유물은 그 당시 新羅와 倭의 외교 관계를 재해석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Ⅲ. 沖ノ島의 韓國系 遺物の 편년

沖ノ島의 제사 유구에서 발견되는 삼국시대 한국계 유물은 유리제품, 鐵鋌, 금제반지, 마구류 등이 있다. 이들 유물이 신라계일 가능성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으나 정확한 연대적 고찰과 봉헌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한국계 유물의 연대는 대략 5~6세기로 추정하고 있으나 편년에 있어 다소 문제점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봉헌된 유물에 대한 제사 단계별 편년에 대해 검토한다.

#### 1. 岩上 출토 유물

제1단계(4~5세기)는 巨岩上의 제사를 행한 16호 유구 출토 鐵鋌을 들 수 있다. 沖ノ島의 巨岩上 제사는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5세기까지 계속된다. 이 중 16호 유구의 鐵鋌은 1957년 조사에서 14개의 鐵板이 한군데서 발견되었는데 이 파편을 접합하였더니 2매의 철판이 되었다.

이 중 가장 긴 鐵鋌은 43.7cm로 약간 결손되어 있어 복원하면 약 50cm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대형 鐵鋌은 가야 고분에서는 유일하게 함안 도항리 10호분과 같이 대형 고분에서 발견된 예는 있으며,<sup>2)</sup> 신라의 경우

1) 宗像神社復興期成會, 『沖ノ島』, 1958, 吉川弘文館.

岡崎敬, 『宗像 沖ノ島』, 1979, 宗像大社復興期成會.

2) 창원문화재단연구소, 『함안도항리고분군 I』, 1977.

왕릉의 하나인 천마총에서 出土되었다.<sup>3)</sup> 沖ノ島 대형 鐵鋌의 연대는 동반유물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함안 도항리 10호분의 경우 4세기 후반으로,<sup>4)</sup> 천마총은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된다. 그리고 『日本書紀』神功皇后 攝政 46년(364)에 백제 근초고왕이 鐵鋌 40매를 보내왔다는 기록이 있어,<sup>5)</sup> 鐵鋌이 그 당시 한·일 교섭에 있어 중요한 공산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沖ノ島에 봉헌된 鐵鋌이 삼국시대 어느 국가 제품인지 알 수 없으나 沖ノ島에는 가야, 백제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신라계일 가능성이 높으며, 연대는 늦어도 5세기 전반~중반의 것으로 추정된다.

## 2. 岩陰 출토 유물

2단계(5세기~7세기)인 암음 제시는 제단이 巨岩上에서 巨岩下의 평탄한 지면에 설치된다. 이 단계의 한국계 출토 유물은 D호 巨岩을 중심으로 남측의 7호 제사 유구와 북측의 8호 제사 유구에서 출토되었다. 7호 제사 유구에서는 금제반지와 마구류 등 많은 유물이 집중되고 있으나, 8호 제사 유구에서는 유리 파편 2점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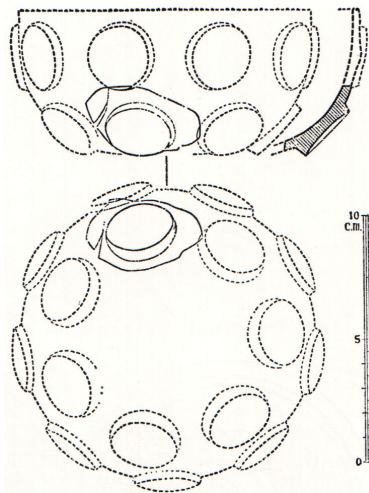


圖 5. 커트 유리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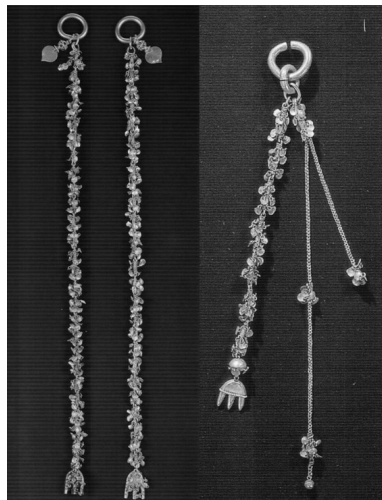


圖 6. 황남대총 금관수식(좌)과  
新澤 千塚 126호분 이식(우)

3) 文化財管理局, 『天馬冢』, 1979.

4) 박광춘, 『아라가야 토기의 편년적 연구』 『咸安 道項里 6號墳』, 2008, 동아세아문화재단연구원.

5) 『日本書紀』 卷第9 神功皇后, 1982, 岩波書店.

### 1) 8호 제사 유구

7호보다 먼저 봉헌된 圖 5의 커트 유리碗은 제1회 조사 당시 8호 제사 유구 중앙 小岩에서 동북측 트렌치 내부에서 파편 1점과 제2회 조사에서 중앙 小岩 서남측에서 파편 1점이 출토되었다. 2개의 파편은 동일 접합점을 가지고 있는 같은 용기 일부이다.<sup>6)</sup> 이와 같은 커트 유리완은 이란 북부의 Sasan朝 시대의 분묘 출토품과 유사하며, 제작지는 이란 고원의 고대 오리엔트 전통을 가진 지방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7)</sup> 완전히 같은 수법은 아니지만 비슷한 커트 기법을 가진 유리완은 신라 왕릉인 경주 皇南大塚 北墳<sup>8)</sup>과 일본의 경주 奈良縣 新澤 千塚 126호분<sup>9)</sup>에서 출토되었다. 경주 皇南大塚 北墳의 年代는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며, 新澤 千塚 126호분도 거의 같은 시기로 편년된다. 新澤 千塚 126호분 출토 유물 중에서 유리碗 외에 유리皿, 金製垂飾付耳飾, 靑銅鏃斗 등은 대표적 외래계 유물로서 신라에서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新澤 千塚 126호분 출토 외래계 유물에 대해 백제 혹은 가야에서 유입된 것으로 생각하는 학설도 있다.<sup>10)</sup> 하지만 金製垂飾付耳飾의 맨 끝에 붙어있는 圖 6의 三枝形 장식은 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圖 6의 皇南大塚 南墳<sup>11)</sup> 출토 金冠垂飾의 장식과 비슷하다. 이 외 여성 부장용으로 사용되는 靑銅鏃斗도 皇南大塚 北墳 출토품과 거의 같다. 5세기 한반도에서 유리 용기가 가장 많이 出土되는 국가는 신라이며, 백제는 출토 예가 없고, 가야에서는 陝川 玉田 M1 고분이 유일하다. 가야의 玉田 M1 고분은 가야 최상층에 해당하는 무덤이지만, 여기서 출토한 유리碗은 신라에서 유입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므로 沖ノ島와 新澤 千塚 126号墳에서 出土되는 유리 용기도 신라를 통해서 봉헌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 2) 7호 제사 유구

7호 제사유구에서는 금제반지, 마구류 등 한국계 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圖 7의 금제반지는 7号 岩陰 제사유구의 서쪽 마구류가 봉헌되어 있는 곳의 鞍, 杏葉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지름이 너무 커서 여성용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남성용으로 보고자는 추측하고 있다. 이 반지는 전면이 菱形狀으로

6) 宗像神社復興期成會, 『沖ノ島』, 1958, 吉川弘文館.

7) 深井晋司 『ベルシャのガラス』, 1973, 淡交社.

8)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北墳) 慶州市皇南洞第98号古墳』, 1985.

9) 橿原考古學研究所, 『新澤162號墳』, 1977.

10) 西谷正, 東潮 『東アジア考古學辭典』 『新澤千塚古墳群』, 2007, 東京出版社.

1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慶州市皇南洞第98号古墳』, 1994.

넓게 되어 있고, 상하 周緣은 隆起刻木帶가 있다. 菱形狀 前面은 圓環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花卉을 배치하였고, 花卉 사이에 다시 圓環을 배치하였다. 전면이 菱形狀으로 넓게 되어 있고, 菱形狀 중앙에 四花卉을 배치한 것은 신라의 반지에서 찾을 수 있다. 圖 7은 皇南大塚 南墳에서 出土된 금제반지로 전면은 능형상이고, 중앙에 圓環과 상하좌우에 花卉을 배치하여 청색구슬을 嵌入하였다. 花卉 주변은 鑲金技法으로 들렀으나 상하 周緣에는 隆起刻木帶가 없다. 현재 신라에서 出土된 금제반지 중에서 沖ノ島와 가장 비슷한 것은 圖 7의 노서리 215번지 출토 금제반지이다. 路西里 215번지 고분은 적석목곽묘로, 1933年 有光教一이 조사하였다.<sup>12)</sup> 沖ノ島와 路西里 215번지 出土 금제반지는 隆起刻木帶가 있는 주연은 비슷하지만, 전면 중앙부의 문양은 路西里 215번지 고분 출토품의 경우 四花卉 사이에 圓環이 없으므로 沖ノ島의 금제반지보다 기법에 있어 고식에 해당된다. 路西里 215번지 고분은 皇南大塚과 金冠塚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신라의 왕족 무덤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沖ノ島의 금제반지도 신라 왕족들이 애용했던 그 당시 최고 수준의 공예품이다.



圖 7. 沖ノ島 7호(左) 황남대총(中) 노서리 215번지(右) 금제반지 비교

금제반지와 인접하여 발견된 圖 8의 棘葉形 행엽은 五棘을 가진 棘葉形으로 투조 문양은 忍冬唐草로서 상부 중앙에 큰 하트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아래 좌우에 작은 하트형이 배치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棘葉形 행엽도 역시 신라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현재 沖ノ島 棘葉形 행엽과 가장 유사한 것이 한반도에서 出土되는 고분은 경주의 壺紵塚이다.<sup>13)</sup> 壺紵塚은 고구려 광개토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용기가 出土하였다고 붙여진 고분으로 乙卯年(415)에 장수왕이 부왕인 광개토왕의 비석을 세우면서 제작한 청동용기이다. 壺紵塚에서 약 20개의 행엽이 出土되었는데, 그 중 5개 이상은 圖 8의 행엽과

12) 有光教一, 藤井和夫, 『朝鮮古蹟研究會原稿 I』 『慶州 路西里 215番地古墳 發掘調査報告』, 2000, 유네스코 東아시아문화연구원.

13) 金載元, 『壺紵塚과金鈴塚』, 1948, 乙酉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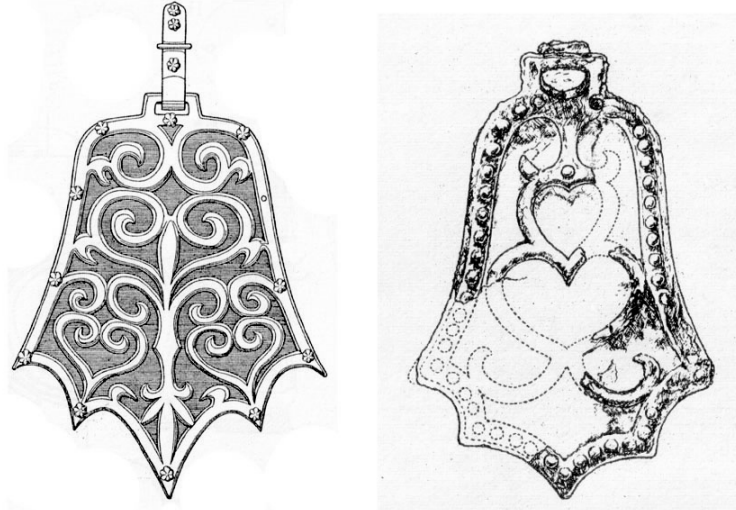


圖 8. 沖ノ島(좌)와 壺衾塚(우) 출토 행엽의 비교

같은 棘葉形이다. 투조 문양은 忍冬唐草로서 하트형을 상하 연결하여 2개 배치하고 있어, 앞에서 설명한 3개의 하트형을 가진 沖ノ島 棘葉形 행엽보다 고식으로 보인다. 壺衾塚은 銀鈴塚과 함께 표형분이고, 앞서 설명한 금제반지가出土된 路西里 215번지 고분과 연결하여 있어 신라 왕족의 무덤임에 틀림없다. 壺衾塚과 路西里 215번지 고분의 선후 관계는 壺衾塚이 路西里 215번지 고분 적석 일부를 자르고 축조되어 있어, 壺衾塚이 路西里 215번지 고분보다 시간적으로 약간 늦다. 路西里 215번지 고분 축조 연대는 圖 9의 출토 유물과 호우총의 연대를 고려하면 5세기 末葉으로 편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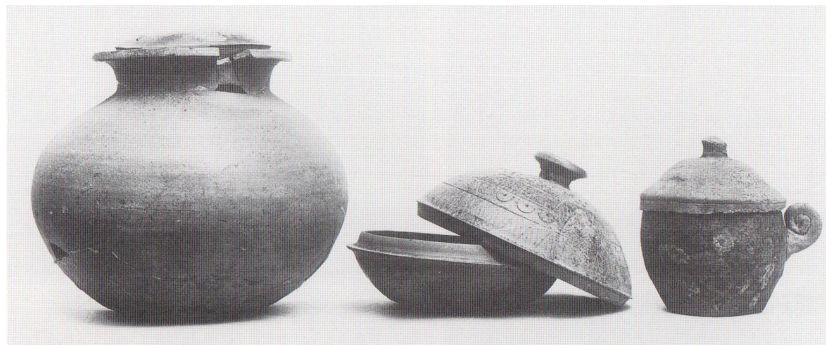


圖 9. 路西里 215번지 고분 출토 토기

마구 중에서 가죽끈을 장식하는 운주는 7호 유적 서쪽에 봉헌된 마구류 중에서 심엽형 행엽과 약간 떨어져서 35개 발견되었다. 이 중 圖 10의 花形半球座步搖式雲珠와 金銅製辻金物雲珠 등은 신라에서 유입된 최고급품이다. 花形半球座步搖式雲珠는 신라 왕릉인 황남대총 남분에서 出土되고 있다. 圖 10의 황남대총 남분 雲珠는 二本釣手の 보요를 가진데 비해 沖ノ島의 운주는 十本釣手の 보요를 가지고 있어 시간적으로 황남대총 남분의 雲珠가 선행한다. 金銅製辻金物雲珠는 앞에서 설명한 棘葉形 행엽과 같은 六花弁 못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마구 SET로 볼 수 있다. 步搖式雲珠群에 접해서 圖 11의 金銅製心葉雲形透彫雲母板玉蟲翹飾鉸具가 帶先金具와 함께 발견되었다. 玉蟲은 양날개가 초록색과 금색으로 영롱하게 빛나는데 영구적으로 색깔이 변하지 않아 고구려, 신라, 일본에서 공예품의 장식으로 사용하였다. 玉蟲 장식 교구와 帶先金具에는 이 외에 운모를 같이 장식하였는데, 보고자는 이것을 新羅産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에서 玉蟲으로 장식하는 마구가 出土되는 고분은 황남대총 남분, 금관총 등과 같은 왕릉에서만 出土되고 있다. 沖ノ島의 옥충교식 교구와 帶先金具도 신라에서 유입된 그 당시 마구류 중에서는 최고급품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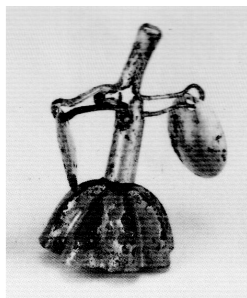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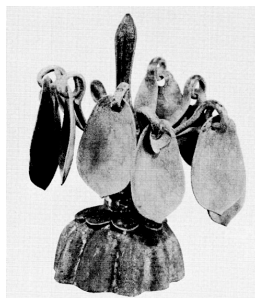


圖 10. 沖ノ島(좌)와 황남대총(우) 雲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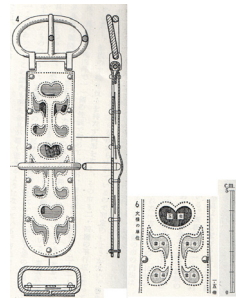


圖 11. 金銅製心葉雲形透彫雲母板玉蟲翹飾鉸具

이상으로 沖ノ島에서 발견되는 한국계 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유물 중에서 鐵鋌을 제외하고는 신라 왕족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하여 그 당시 신라의 최고급 공예품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계 유물이 봉헌된 시점은 圖 12에서와 같이 크게 岩上 제사와 岩陰 제사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암상 제사에 봉헌된 鐵鋌은 가야와 신라의 鐵鋌 연대, 『日本書紀』364년에 백제에서 예물로 鐵鋌을 보내왔다는 기사 등을 참고하면 늦어도 5세기 전반으로 추정된다. 岩陰 제사 단계는 8호 유구의 유리완과 7호 유구의 많은 마구류와 금제반지가 봉헌된 시점은 출토 상황으로 보아 시간차를 두고 있

다. 커트 유리완은 커트 기법이 사용된 경주의 황남대총, 일본의 新澤千塚 126호분의 연대를 고려하면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많은 마구류와 금제반지가 봉헌된 7호 유구의 제사는 노서리 215번지 고분의 금제반지와 호우총의 행엽보다 늦은 형식이다. 반면 圖 12의 藤ノ木古墳<sup>14)</sup> 출토 봉황문 투조 棘葉形 행엽보다는 沖ノ島의 忍冬唐草文 棘葉形 행엽이 빠른 型式이다. 藤ノ木古墳이 6세기 中葉으로 일본에서 편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沖ノ島의 棘葉形 杏葉은 이보다 앞선 6세기 전엽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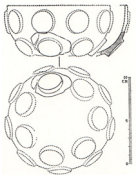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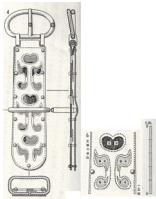


地域 段階	沖ノ島	新羅	日本本土
암상 제사 5세기 전 반			
암음 제사 1 기 5세기 후 반		 황남대총 북분 	 新澤126号墳
암음 제사 2 기 6세기 전 반	  	노서리 215번지 고분  호우총	 藤ノ木 古墳

圖 12. 沖ノ島 出土 신라계 유물의 편년표

14) 檀原考古學研究所, 『斑鳩藤ノ木古墳』, 1986.

#### IV. 沖ノ島와 新羅 유물의 봉헌 배경

沖ノ島에서 발견되는 한국계 유물인 鐵鋌, 유리碗, 금제반지, 마구류를 앞에서 자세히 검토한 결과 5세기에 2회, 6세기 前葉의 어느 시점에 1회 이상 제사가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沖ノ島에서 발견되는 신라계 유물의 봉헌 배경에 대해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보고서에서 지적한 왜구의 활동에 의한 것<sup>15)</sup>으로 보는 견해와 국제적 교류의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16)</sup> 국제적 교류의 산물로 보는 의견은 沖ノ島에 출토되는 외국계 유물 중에서 7세기가 되면 이후의 중국계 유물도 봉헌되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6세기 이전의 외국계 유물은 주로 신라계 유물로 단순한 교류 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 신라와 일본은 6세기까지 항상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사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현해탄을 건너 일본으로 왕래할 경우 보통은 對馬島를 경유하여 잇기(壹岐) → 日本으로 가는 안전한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항로 외에 망망대해 속에 있는 작은 섬 沖ノ島를 경유하는 위험한 항로를 개발하여, 신라의 최고 수준의 공예품을 봉헌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무역 활동

鐵鋌은 일본의 야마도(大和)정권이 성숙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이었다. 그것은 지방 수장을 군사적으로 견제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첨단 무기생산과 경제를 비약적 발전시키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농기구를 철기로 교체시키는데 있어 너무 중요한 것이었다. 그 당시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철기 생산 원료인 鐵鋌은 주로 가야 혹은 신라에서 수입되었다. 앞 장에 언급하였듯이 神功皇后 46년(364)백제와 일본이 통교하는 예물로 백제에서 鐵鋌을 보냈을 정도로 일본에는 鐵鋌이 귀중한 물품이었다. 일본 鐵鋌의 주 수입처인 신라, 가야의 鐵鋌은 圖 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경주, 김해, 함안과 같은 정치적 중심지에 출토 사례가 많다.<sup>17)</sup> 일본의 경우도 야마도(大和)정권의 중심지인 오오사카(大阪)와 나라(奈良)에 집중하고 있다. 이 외에 분포가 집중되는 지역은 신라, 가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큐우슈우(九州)의 후쿠오

15) 宗像神社復興期成會, 『沖ノ島』, 1958, 吉川弘文館.

16) 小田富士雄, 『沖ノ島』, 『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10, 1997, 雄山閣

17) 都出比呂志, 『古墳時代の王と民衆』, 1989.

카현(福岡縣)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다. 큐우슈우(九州) 鐵鋌의 분포에서 주목되는 것은 對馬島에서 출토 예는 거의 없는데 비해 沖ノ島, 그리고 沖ノ島와 가까운 무나가타(宗像)에 집중하고 있다. 宗像는 현해탄을 중심으로 활약하는 아주 큰 해상세력이 있었다. 이것을 증명하듯 宗像에는 현해탄이 바라보이는 대지상에 5세기 전반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열상으로 축조된 쓰야자키(津屋崎)고분군이 있다.<sup>18)</sup> 이 고분군은 전방후원분을 비롯하여 방분, 원분이 약 100기 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현재 국가지정 사적이다. 津屋崎古墳群 중에서 7세기에 축조된 미야지다케(宮地嶽)고분은 일본 횡혈식석실묘 중에서 최대급으로 피장지는 천황의 장인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9)</sup> 宗像의 해상세력이 5세기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한·일 철 무역에 깊숙이 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沖ノ島의 주변 해역을 관리하는 宗像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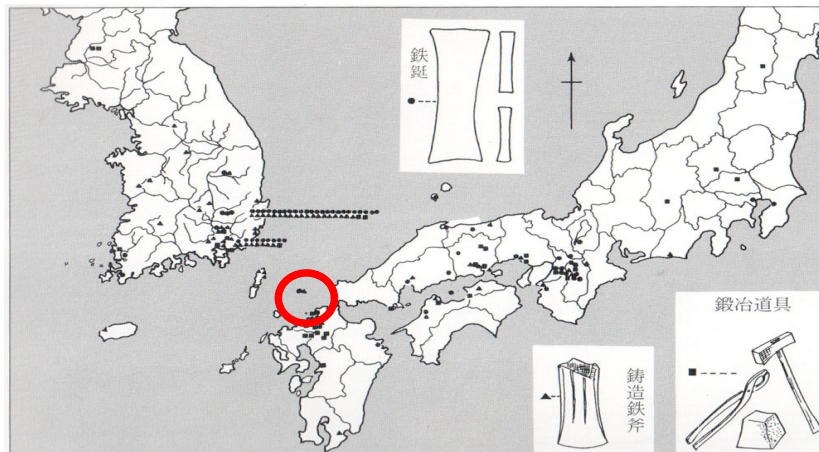


圖 13. 한일 철정의 분포도

## 2. 사신 왕래

문헌기록 뿐 아니라 한·일 고고학자들은 5~6세기 신라와 왜는 거의 적대적 관계인데 비해 가야와 왜는 혈맹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고 있다. <表 1>은 5세기 신라와 왜의 관계를 문헌에서 살펴보기 위해 『三國史記』신라와 왜 관련 기사를 나타내었다. 이 表에서 알 수 있듯이 402~500년 사이에 倭 관련 20회

<sup>18)</sup> 福岡縣, 宗像市, 『宗像・沖ノ島と關連遺産群』, 2008.

<sup>19)</sup> 梅原末治, 『日本古墳巨大石室聚成』, 京都帝國大學考古學研究報告14, 1937.

기사 중에서 402년과 418년 倭國과 관련 기사, 408년 對馬島에 倭人의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襲擊한다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17회는 倭人, 倭兵이 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表 1> 三國史記 5世紀의 新羅와 倭 관련 記事

年代	倭國	倭人	倭兵	備考
402年	3月			國交締結
405年			4月	侵入
407年		3,6月		侵入(2回)
408年		2月		對馬島에 軍營
415年		8月		戰爭
418年	秋			未斯欣歸國
431年			4月	侵入
440年		?6月		侵入(2回)
444年			4月	侵入
459年		4月		侵入
462年		5月		侵入
463年		2月		侵入
476年		6月		侵入
477年		5月		侵入
482年		5月		侵入
486年		4月		侵入
497年		4月		侵入
500年		3月		侵入

그리고 倭가 신라를 침입하는 계절은 3~6월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현해탄의 험한 파도를 이겨내고 무사히 건너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가 3~6월(양력으로 4~7월)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5세기 일본 각지에서 출토되는 한국계 유물은 신라계보다는 가야계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沖ノ島 보고서에도 신라계 유물이 봉헌되는 배경을 ‘전리품 혹은 전승기원이라고 단적인 생각이 떠오른다고’ 결어에서 언급하고 있다.<sup>20)</sup>

5세기의 『三國史記』에는 일본과 신라가 적대적인 기사로 채워져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沖ノ島 출토 鐵鋌, 유리碗, 금제반지, 마구류와 앞 장에서

20) 岡崎敬, 『宗像 沖ノ島』, 1979, 宗像大社復興期成會.

살펴본 奈良縣 新澤 千塚 126号墳 출토 유물 중에서 유리碗, 유리皿, 金製垂飾付耳飾, 靑銅鏃斗 등은 신라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을 앞장에서 살펴보았다. 5세기에 신라와 일본은 외교에 있어 적대적 관계를 기조로 하지만 新澤 千塚 126号墳 부장품에서 보듯이 최고급 신라 유물이 일본의 중심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해서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추측컨대 조문 사절 파견, 정책적 혼인, 군사적 충돌, 의원 파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使臣을 파견하였을 것이다. 『日本書紀』允恭天皇 42년(453)에 신라에서 천황 죽음을 조문하는 사절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3년(422)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의원을 구했다는 기록이 있어 신라와 왜는 간헐적인 외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라와 왜의 혼인에 대한 기록은 한·일 문헌기록에 보이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三國史記』法興王 九년(522)에 의하면 적대적 관계인 있었던 신라와 가야 사이에 외교적 결혼이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신라와 왜에 있어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것에서 유추해 볼 때 沖ノ島에 5세기 후반 신라 혹은 왜의 사신들이 유리碗을 향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 기물로 龍王에게 봉헌하게 되었을 것이다. 신라에서 大阪으로 가기 위한 가장 지름길은 圖 14에서와 같이 新羅 → 上大馬島 → 沖ノ島 → 오오시마(大島) → 宗像 → 瀬戶內海 → 大阪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圖 14. 5~6세기 新羅에서 倭國으로 가는 航路

삼국시대 대마도의 중심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가장 북단인 히타카즈(比田勝)港 부근에는 5~6세기 신라 유물이 출토되는 아시히야마(朝日山)유적과 고후노사이(コフノ採)유적 등이 집중하고 있다. 對馬島 북단에 신라 유물이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것은 新羅에서 對馬島로 향해 할 경우 북단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sup>21)</sup> 對馬島에서 宗像로 가는 것은 大阪로 가는 지름길이었으며, 沖ノ島와 宗像 사이에는 오오시마(大島)가 있어 안전하게 교통로를 확보하였다. 이 때문에 종상은 해상 교통로의 요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한·일 무역 활동의 많은 부분은 宗像의 해상 세력이 담당하게 되면서 5~7세기까지 막강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다.

### 3. 磐井의 亂

한편 6세기에 沖ノ島에 봉헌된 신라계 금제반지와 마구류 등 신라 왕릉급 고분에서 출토되는 것과 유사한 유물이 수십점 출토된다. 무역이나 사신들에 의한 제사 행위로 보기에 너무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있으므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행한 제사 행위로 추정된다. 7호 유구 신라계 금제반지와 마구류가 집중되는 부근에서 圖 15의 劍形附飾扁圓劍菱形杏葉이 파쇄된 채로 3枚가 발견되었다. 劍形이 장식된 劍菱形杏葉은 일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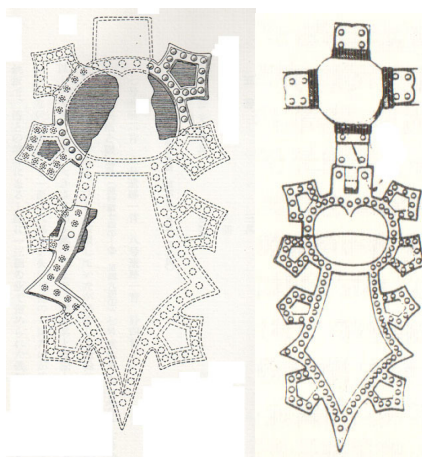


圖 15. 沖ノ島(左)와 王塚古墳(右) 출토 杏葉 비교

서 출토 예가 많지 않은 행엽으로 이 중 하나는 築前國 王塚裝飾古墳 출토 행엽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하다.<sup>22)</sup> 만약 신라계 금제반지, 마구류하고 劍形附飾扁圓劍菱形杏葉이 같은 시점에서 봉헌되었다고 한다면 이 봉헌품들은 『日本書紀』繼體天皇 21年(527)에 보이는 磐井와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세기에 들어오면 『三國史記』에는 갑자기 신라와 倭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게 된다. 신라는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가야의 일부를 병합하게 되자 이러한 정보를 입수

21) 박광춘, 『日本九州 북부의 신라·가야계 유적·유물』 『한국고대사논총』3,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22) 梅原未治·小林行雄 『筑前國嘉穂郡王塚裝飾古墳』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15, 1940.

한 大和政權은 가야를 도우려고 한다. 이에 大和政權은 신라를 견제하고 병합된 가야를 탈환하기 위해 군사를 가야에 보내려고 하지만 九州 각지의 首長들은 가야 파병을 위한 兵士 차출을 꺼려하고 있었다. 九州 최고 首長이었던 築紫君 이와이(磐井)가 九州 각지의 首長들의 불만을 달래면서 반란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新羅는 이것을 알고 磐井에게 뇌물을 보내 가야 파병을 저지해달라고 부탁한다. 신라의 후원을 받은 磐井는 火와 豊 두나라에 세력을 뻗쳐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하고, 밖으로는 해로를 봉쇄하여 近江毛野臣의 군대와 충돌하였다고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보이는 火와 豊 두 나라는 현재 熊本의 정치세력과 大分の 정치세력이라고 추정되며, 해로를 봉쇄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沖ノ島를 관리하는 宗像의 해상세력도 磐井의 반란에 합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신라에서는 磐井에게 사신을 파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磐井는 沖ノ島에서 신라의 사신을 맞이하여 동맹을 맺는 제사를 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신라의 최고급 마구와 일본 九州의 최고급 마구가 같이 출토되는 것은 磐井 亂을 배경으로 한 제사 행위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VI. 맺음말

沖ノ島에서 행해진 1단계(4~5세기) 巨岩上의 제사와 2단계(5~7세기)에 해당하는 岩陰의 祭祀에서 한국계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들의 연대 추정을 통하여 적어도 3번 이상의 한국계 유물이 제사에 봉헌되었다. 巨岩상에서 발견된 대형 鐵鋌은 동반 유물이 없어 新羅, 加耶, 百濟 중에서 어디에서 제작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일 鐵鋌 분포를 통해 볼 때 鐵鋌은 신라에서는 경주, 가야에서는 김해, 함안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畿内와 九州의 무나가타(宗像)에서 출토 예가 많다. 무나가타(宗像)는 沖ノ島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나가타(宗像)의 세력이 新羅·加耶와 大阪의 大和政權을 연결하는 鐵鋌의 무역에 깊숙이 관여하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宗像는 5세기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면서 쓰야자키(津屋崎)고분군이 축조된다. 鐵鋌이 봉헌되는 배경에는 무나가타(宗像)세력의 무역 활동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岩陰제사 단계에는 8호 유구의 유리완과 7호 유구의 금제반지와 마구 출토에서 최소 2회 이상의 제사를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후반 유리그릇의 중심지는 신라이며, 8호 유구에서 출토된 커트

기법의 유리그릇은 경주의 황남대총 북분과 일본 나라(奈良) 新澤 千塚 126호 분에서 출토되고 있다. 유리그릇은 그 당시 신라의 왕족들이 사용하는 최고급 공예품으로 실크로드를 통한 수입품이다. 이러한 유물이畿內에서 발견되는 것은 신라와 大和政權과 외교적 왕래에 의한 산물에 의한 것이며, 沖ノ島 제사에서 봉헌된다는 것은 단순한 무역 활동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 당시 신라와 왜의 관계는 『三國史記』의 기사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왜가 신라를 침공했다는 기사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최고급 신라 공예품이 沖ノ島와 왜의 정치적 중심지인畿內地方에서 출토되고 있어 『三國史記』의 기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신라와 왜는 5~6세기 정치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하지만 항상 이러한 상태를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 5세기 후반 일시적으로는 외교 관계가 복원되어 『日本書紀』紀事에서 보이는 醫員 초빙, 조문사절 등 사신의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세기에 전반 沖ノ島 7호 제사유구에서 출토된 수십 점의 신라계 금제반지와 마구류는 무역이나 사신들에 의한 제사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 많다. 특수한 목적에서 행한 제사 행위로 같은 유구에서 일본제 劍形附飾扁圓劍菱形杏葉이 파쇄된 채로 3枚가 발견되었다. 劍形이 장식된 劍菱形杏葉은 일본에서 출토 예가 극히 작은 행엽으로 이 중 하나는 築前國 王塚裝飾古墳 출토 행엽과 형태와 크기가 비슷한 것을 착안하여 『日本書紀』繼體天皇 21年(527)에 보이는 磐井와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세기에 들어오면 『三國史記』에는 갑자기 신라와 倭 관련 기사가 보이지 않게 되며,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가야를 병합하게 된다. 이에 大和政權은 가야를 도우려고 군사를 파견하려고 하지만九州 각지의 首長들은 가야 파병을 위한 兵士 차출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九州 최고 首長인 築紫君 이와이(磐井)가九州 각지의 首長들을 모아 차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되어 반란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新羅는 이것을 알고 磐井에게 보물을 보내 가야를 도우지 못하게 磐井에게 부탁한다. 신라의 후원을 받은 磐井는 해로를 봉쇄하여 중앙 정부군과 충돌하지만 패하게 된다. 해로를 봉쇄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沖ノ島를 관리하는 宗像의 해상세력도 磐井의 반란에 합세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신라에서는 磐井에게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磐井는 沖ノ島에서 사신을 맞이하여 新羅의 최고급 마구와九州의 최고급 마구를 봉헌하면서 동맹을 맺는 제사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투고일 2009년 7월 17일 | 심사완료일 2009년 8월 19일 |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28일 ■

## 참고문헌

- 岡崎敬, 『宗像 沖ノ島』, 1979, 宗像大社復興期成會.
- 檀原考古學研究所, 『斑鳩藤ノ木古墳』, 1986.
- 檀原考古學研究所, 『新澤162號墳』, 1977.
- 金載元, 『壺衿塚과金鈴塚』 1948, 乙酉文化社.
- 都出比呂志, 『古墳時代の王と民衆』, 1989.
- 梅原未治, 『日本古墳巨大石室聚成』, 京都帝國大學考古學研究報告14, 1937.
- 梅原未治・小林行雄 『筑前國嘉穗郡王塚裝飾古墳』 京都帝國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報告15, 1940.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慶州市皇南洞第98号古墳』, 1994.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北墳) 慶州市皇南洞第98号古墳』, 1985.
- 文化財管理局, 『天馬塚』, 1979.
- 박광춘, 『아라가야 토기의 편년적 연구』 『咸安 道項里 6號墳』, 2008, 동아세아 문화재연구원.
- \_\_\_\_\_, 『日本 九州 북부의 신라·가야계 유적·유물』 『한국고대사논총』3,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 福岡縣, 宗像市, 『宗像・沖ノ島と關連遺産群』, 2008.
- 西谷正, 東潮 『東アジア考古學辭典』 『新澤千塚古墳群』, 2007, 東京出版社.
- 小田富士雄, 『沖ノ島』 『考古學による日本歴史』10, 1997, 雄山閣.
- 深井晋司 『ペルシャのガラス』, 1973, 淡交社.
- 有光教一, 藤井和夫, 『朝鮮古蹟研究會原稿 I』 『慶州 路西里 215番地古墳 發掘調査報告』 2000, 유네스코 東아시아문화연구센터.
- 『日本書紀』 券第9 神功皇后, 1982, 岩波書店.
- 宗像神社復興期成會, 『沖ノ島』, 1958, 吉川弘文館.
- 宗像神社復興期成會, 『沖ノ島』, 1958, 吉川弘文館.
- 창원문화재연구소, 『함안도항리고분군 I』, 1977.

Abstract

## A Study on Silla Artefacts found from Okinosima

Park, Kwang Choon

Two islands Tsusima and Okinosima play a connecting role of Korea and Japan. Slightly laid in eastern side compared to Tsusima, Okinosima located in 145 km from Busan and its side in total is quite small: east-west 1.5km, south-north 0.5km. Therefore, Tsusima has always been highlighted to understand ancient conne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rather than Okinosima. However, it should be discussed that Silla artefacts found from Okinosima are enormously crucial and those overwhelm the Tsusima artefacts. Since 1954 three academic excavations were conducted in Okinosima. There are 23 ritual relics in the middle of the island and Silla artefacts are as such: iron nail from Am-sang site, horse harness, gold ring, glass plate from Am-um site. Those artefacts are all found mainly from the royal Silla tombs in Korea. Other artefacts seemed to be buried in between late 5th to early 6th centuries. According to the historic written records on 'Three Kingdoms History', Wae(refers Japan) attacked Silla frequently in the time of 5th to 6th centuries and this means Wae and Silla had quite negative relationship. However, artefacts found from Okinosima and Osaka area are mostly made for royal or high class group. Then, the historic records and the fact do not match each other. The background of those 5th century artefacts can be presumed that Silla envoys stayed in Okinosima during their trip to Osaka and then prayed for the Sea God for their safety. In case of the 6th century artefacts, they could be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of 5th century artefacts. However, 'History of Japan' recorded that Iwai Revolt which happened in 527. According to the record, Silla asked Iwai to stop Wae's expedition to Silla and Silla contributed amounts of precious jewellery to Iwai. In this process, Silla might send envoy to Iwai in Okinosima and

the General of Iwai welcomed the envoy and then held religious or ritual services in Okinosima.

Key words : Okinosima, Silla artefacts, trade, envoys, Iwai